

光日春秋

고원정



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 한 분은 가끔 이런 말을 하시곤 했다. '선생에는 은메달이 없어' 청년시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경력이 있다고 알려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곤 했지만 정작 본인의 표정은 늘 어떤 회한에 찬 것이었다.

2등이라고 하면 어떤 뉘엿뉘엿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지만 2등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때로는 1등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우선 글 쓰는 일에서도 그렇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이나 현상모집에서 가장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작품은 2등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재능은 뛰어나지만 완성도가 떨어진다든지, 학생의 작품으로 믿기 어렵다든지 하는 심사평이 뒤따른다.

1등을 차지하는 작품은 내용부터가 학생다운 면모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성문인의 등용문인 신춘문예나 각종 신인상도 다르지 않다. 남다른 소재에

남다른 기법을 구사하는 실험적인 작품들은 당선이 되기보다는 '최종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역시 2등이다. 주목받는 작가들의 대부분은 약속이나 한 듯 이 방향의 이력들이 만만치 않다.

2등을 보라

학교성적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1등을 하려면 전과목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내려야 하지만 2등은 어딘가 한 부분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런 2등을 1등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다.

월드컵 축구의 역사에도 위대한 2등팀들이 있다. 1954년 스위스 대회의 헝가리와 1974년 서독대회의 네덜란드가 그 팀들이었다. 헝가리는 서독에게 우승컵을 넘겨줬지만 4-2-4라는 새로운 포메이션을 정착시켰고, 네덜란드 또한 서독에게 저준우승에 머물렀지만 토털 사커의 원조로 명성을 얻었다.

육상 장거리 경주를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처음부터 선두를 달리는 주자보다는 2~3위를 유지하던 이가 막판 스피드로 우승을 차지하곤 하지 않던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의 뒤를 '발 뒤꿈치를 밟을 듯이' 쫓아가라고 자기 선수에게 가르치곤 한다. 무서운 2등을 이

다시 '은메달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돌아가보자. 역시 우리는 늘 1등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어떤 비전을 제시

하고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대선으로 말하자면 향후 5년은 1등한 이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2등을 눈여겨 보아야만 한다. 2등이 누구이며 그가 낙선 후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는 다음 5년의 흐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무엇보다 2등을 할만한 표를 준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1987년의 2등은 김영삼이었다. 집권은 노태우 대통령이 했지만 정작 그 임기를 지배한 것은 민주화의 열기였다. 92년 대선에서 사실상 한 뿌리인 양김

이 1·2등을 했다는 점은 민주화와 개혁이 계속되리라 예고하고 해도 좋았다. 97년과 2002년에 연거푸 2등을 한 이회창씨의 지지자들은 87년 이후 코너에 몰려있던 보수세력들을 되살려냈다. 이래도 2등이 중요하지 아니한가?

물론 2등이란 본인에게는 불만스러운 자리다. 끝내 1등에 오르고 싶은 이들은 2등으로서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그 한계를 넘어야 한다. 87년 대선에서 한계를 느낀 김영삼씨는 3당합당이라는 선택으로 1등이 될 수 있었다.

87년에 3등, 92년에 2등을 한 김대중씨와 97년에 1등을 한 김대중씨는 분명히 달랐다. 이른바 '뉴DJ'다. 김중필씨의 제후도 마다하지 않았다. 2등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회창씨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97년에 2등할 때나 2002년에 2등할 때나 변함이 없는 그 이회창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2등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2등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선거에는 은메달이 없다는 옛 선생님의 말은 절반밖에 맞지 않는다. 권력은 분명히 1등의 것이지만 시대의 흐름까지 그렇지는 않다. 2등을 보라. <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세계육상 유치 패거 이젠 여수엑스포다

대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권을 따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호주 브리즈번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유일한 국제대회 개최 실적인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것은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외교의 위대한 승리이자 자신감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스포츠 외교의 강국이 올라섰다. 여기에 치밀한 유치 전략과 대구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개최 경험이 풍부한 유렵의 벽을 넘어선 것이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월드컵 축구, 하계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3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 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축구에 이어 세계육상선수권까지 따내 일곱번째로 '트리플 크

라운'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올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4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이벤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이벤트들이다.

당장 급한 것은 세계박람회다. 개최지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박람회기구 사무국의 여수 현지 실사 결과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수는 모로코의 탕헤르 및 폴란드 브로츠와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세계박람회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유치 전략, 국민들의 성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또 하나의 패거리를 오는 12월 여수에서 기대한다.

불법 광고물 넘치는 광주 방치만 할 건가

불법 광고물로 광주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총장로와 삼부지구, 응봉지구 등 광주시내 주요 도심이 마구 뿌려지는 소형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로 난장판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여기에도 도로를 점거한 불법 광고 설치물까지 범람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 방해 등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는 것은 숨막방이 처벌 때문이다. 현행법상 불법 전단지의 경우 최고 1만5천원의 과태료만 물면 된다. 그러나 고정형 불법 광고물은 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처벌은 거의 전무하다. 지난해 광주시에 단속된 2만8천138건 중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는 단 한 곳도 없고, 유동형 불법 광고물 업주 14명만이 고발 조치됐다.

단속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은 속속들이 할 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속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상시적인 단

속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업주들은 '절편만 반납하고 다시 만든다'는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에 의해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는 업주의 연락처가 없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법 광고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보기에도 민망한 불법 전단지야 도심은 물론 주택가까지 버젓이 뿌려져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지자체의 단속의지나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의 단 한 곳도 없고, 유동형 불법 광고물 업주 14명만이 고발 조치됐다. 단속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은 속속들이 할 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속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상시적인 단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공순환



학생 폭력과 비정의 부모 등 비인륜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발생했다. 학생 폭력의 경우 지난 17일 보성의 한 여고학생이 동급생 8명으로부터 4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고, 지난 25일 광주 S여고 1학년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폭행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해 사주한 남학생을 시켜 성폭행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뿐이라, 감히 부모로서 아니 교직자로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 앞에 언급하조차 삼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살인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지난 19일에 여수에서 비정한 부정(父情)이 5살짜리 딸을 목 졸라 죽인 후, 인근

나 활동을 경험해 하여, 때에 자신감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 주고, 또한 격려와 칭찬으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북돋워주어, 혼자서 힘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을 만끽하도록 하는 여유심도 심어줘야겠다.

전문가에 의하면 자녀살해의 범행은 가족 내의 범죄패션 즉, 외부에서 일 반인들이 감지 못하는 심지어는 가족들 도(나중에서 알게 되는) 모르는 '닫힌 공간에서의 비행'이라는 일침도 있다.

이러한 비정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그 도를 넘어 신체와 성적학대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정도로 악랄해지

기고

강점동



지난 22일은 열다섯번째 맞는 '세계 물의 날'이다. UN이 선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지구촌 물부족 극복(Coping with Water Scarcity)'으로 지구촌의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함께 지하수, 상수원수 수질악화로 인해 물의 공급과 수요에 불균형이 발생 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1인당 물 사용량이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나라로 오는 2020년이면 약 10억 m3 가량의 물 부족 현상이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부영양화, 탁수 문제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상수원의 오염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더욱 제한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 부족 극복할 수 있다

각 지역간 물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구촌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차드호는 한때 세계에서 6 번째로 큰 호수였으나 지금은 40년 전에 비해 겨우 5%정도만이 남아있다.

또한 2005년 발간된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건조지역의 10~20%가 이미 사막으로 전락했고 곧 이곳에서 살던 수백만명이 떠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약소국인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물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인 수돗물 사용량이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수자원정책에 대한 각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을 모두 물이 우리 인류의 미래에 가장 소중한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절약정신을 실천하는 마음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2020년에도 우리나라의 물부족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운영팀장>

독자마당

호텔 등의 봉사료 10% 이젠 없애도 된다

업무 때문에 거래처 사람들과 호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식사 대금에 음식 가격과 세금 외 별도로 10%의 봉사료가 부과되는 사실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본래 봉사료는 종업원의 서비스에 만족을 느끼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주는 팁이다. 그런데도 손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봉사료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대 소위 돈이 있어 보이는 외국인에게 과도한 팁을 요구하거나 서로 접대 분야를 앞다투어 지원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권고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봉사료는 모든 직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급여의 성격으로 변질됐다. 고객이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해 주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호텔업계에서는 봉사료 제도를 자율로 하면 급여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요즘 호텔뿐 아니라 어느 분야든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연한 고객 서비스를 하면서 호텔이라고 해 손님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팁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만큼 이제는 관행을 고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박성민·광주시 동구 율리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학교 폭력 막으려면 대화부터 하라

바다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고, 20일에 비정의 모정(母情)에 의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발로 차서 벽에 부딪쳐 죽게 한 사건도 있었다.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있을 수 있는지? 자다가도 필적 일어날 일이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다 같이 인격형성이 미성숙된 10~20대 초·중반과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지 못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학생폭력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의 간의 대화부족으로 인한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자기들 만의 공간 회복'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자기들 만의 공간 회복이 안되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해야 할 모든 본분을 망각하고, 새로운 자기들 만의 따돌리기(왕따)나 다른 일련의 폭력문화를 생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교과적 체험이

고 있어, 우리사회의 도덕부재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제도에서의 보호책이 원만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아울러서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제반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해 즉각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정안정망을 하루 속히 구축해야 한다. 또 사건의 성격형성이 미성숙된 10~20대 초·중반과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지 못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늘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는 청소년 선도 기관(단체)과 학부모를 연계한 상담망 구축과 학교 상담력 강화를 통한 학교안정망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광주 광산중학교장>

농사용 전깃줄 도둑질은 농민 두번 죽이는 일

농촌에서 밭기 농사를 하는 시력 인근에서 농사용 전깃줄을 도난당했다.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농사용 전깃줄은 밭기 뿐만 아니라 상추나 방울 토마토같은 각종 시설 작물들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준다.

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는 전깃줄을 뚫 잘라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농번기때는 수확해서 판매를 앞둔 농산물을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 농사용 전깃줄까지 잘라가 버리면 농민들은 살 길이 막

막하다. 가뜰이나 힘든 농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해서는 안된다.

전깃줄의 구리동선을 팔기 위해 이런 짓을 한다고 한다. 한편에서 현상금까지 걸었다는데 전라도 지역에서만 활개치지는 않을 것 같다.

오죽했으면 농민들이 자체 순찰조를 만들어서 도둑들을 막겠다고 하겠는가. 경찰에서는 강력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

▲이민경·광주시 동구 대의동

無等鼓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 직을 마친 뒤 나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한 얘기다.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던 카터는 재임시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하고 지나친 이상주의 외교를 추구했다. 그 결과 권좌에 있을때는 '최악의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는 NGO 단체인 '카터센터'를 만들어 인권 개선과 빈곤 타파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집 없는 빈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운동에

도 자원 봉사자로 활동했던 카터의 퇴임 후 모습은 우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미국의 수치'로 불리기도 했던 리처드 닉슨도 퇴임 후 역전극을 펼쳤다. '평화를 위해서' 등 9권의 책을 써 중도 하차했던 불명예를 극복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평화의 사도 역할을 했던 넬슨 만델라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존해 있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4명이다. 이들의 퇴임 후 근황과 생활 스타일은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독특하다. 세월이 흘러도 이들은 쉽사리 결과 권좌에 있을때는 '최악의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는 여전히 정치권 소용돌이의 와중에 있다.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흥업씨의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

궐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주당의 전략 공천에 반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자칫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5)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